

통일신라토기 골호에 나타난 심미의식

The aesthetic consciousness which appears in earthen cinerary urn of Unified
Shilla Period

박경희

강원대학교 디자인대학 문화상품디자인학과 교수

Park kyung-he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1. 서론

2. 문헌에 나타난 화장문화(化粧文化)

3. 통일신라토기 골호의 시대별특징

3-1. 전기

3-2. 중기

3-3. 후기

4. 골호의 형태와 문양에 나타난 심미의식

5. 결론

참고문헌

논문요약

통일신라시대의 왕들이 화장을 유연하였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불교의 영향으로 화장문화가 발달했음은 출토된 골호의 형태와 문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에 등장하는 탑형·보주형·원형 등 다양한 골호의 형태와 연화문·영락문·연주문·원권문 등의 문양에서 전통의 미를 존중하면서 새로운 것을 응용하는 조화의 심미의식, 국가를 초월하여 외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원만하게 하는 원융의 심미의식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예전의 토기가 대부분 무덤에 넣는 부장품이었음에 비해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사람들의 소망을 골호의 형태와 문양에 그대로 담아 표현하던 신심의 심미의식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화장문화, 토기골호, 원융의 심미의식)

Abstract

The cremation culture was advanced with Buddhism effect. We can find it through testaments of the kings in unified Shilla period and we can be able to confirm from forms and patterns of excavated earthen cinerary urns.

The aesthetic consciousness of the harmony and the amalgamation are discovered which through various cinerary urns of pagoda style·magic pear style·round shape style etc. and lotus flower patterns·patterns of various and the round shape etc. in unified Shilla period. The former is to respect tradition and apply the new thing and the latter is to surpass actively the civilization of the foreign nation and to unite into one.

Keyword

(the cremation culture, earthen cinerary urn, the aesthetic consciousness of the amalgamation)

1. 서론

삼국을 통일한 신라가 강력한 전제왕권을 바탕으로 넓은 영토와 인구를 지배하게 되면서 통일신라문화의 특징인 중국화·불교화의 경향은 전국으로 확대되어갔다. 신라 지배계급의 대표적인 무덤이었던 돌무지덧널무덤은 7세기 경부터 고구려·백제 계통의 돌방무덤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돌방무덤이 귀족의 분묘인데 반해 일반인들은 불교의 영향으로 7세기경부터 화장을 하였는데, 신라 29재 무열왕(654)에서부터 56대 경순왕(935)에 이르는 27명의 왕 중에서 화장(火葬)을 한 왕으로는 통일을 이룩한 문무왕을 비롯하여 효성왕·선덕왕·원성왕 등이 있다.

이 시대의 토기는 석실고분의 부장품에서 출토된 토기, 화장골호(火葬骨壺) 그리고 안압지에서 출토된 일상생활용 토기의 3종류로 구분된다. 특히 종래 보지 못하였던 뚜껑이 있는 형태의 토기가 많아지는데, 뚜껑에는 보주형 또는 배형 꼭지가 달려있고, 뚜껑과 합이 표면에는 음각 또는 압인한 점권문 또는 반점권문이 있는 화장골호가 경주 부근의 산기슭에서 출토된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것은 불교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삼국사기』의 문헌에 나오는 왕들의 유언을 통해 불교의 보급으로 화장이 성행하였음을 알아보고, 대체로 뚜껑이 있고 대다수 인화문을 가지고 있는 골호를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골호의 형태와 장식된 문양의 비교와 분석을 통해서 통일신라시대의 토기문화에 대한 미의식을 연구하고자 한다.

2. 문헌에 나타난 화장문화(化粧文化)

불교에 따른 화장은 7세기 중엽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문무왕(文武王, 661~680)이 자신의 화장을 유언한 것에서 알 수 있으며, 효성왕(孝成王, 737~741)·선덕왕(宣德王, 780~785), 원성왕(元聖王, 785~798) 등도 역시 화장을 유언하였고 8세기에는 더욱 유행하게 되었다.

『삼국사기(三國史記)』 권 제7 신라본기(新羅本紀) 문무왕(文武王)에 보면,

7월 1일에 왕이 돌아가시므로 시호를 문무(文武)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유언에 따라 동해(東海) 어귀의 큰 바위[大石]에 장사 지냈다. 세상에 전하기를, 왕은 용(龍)이 되어 나라를 지킨다고 하여 그 바위를 가리켜 대왕석(大王石·大王巖)이라고 하였다. 왕은

유조(遺詔)에게 말하기를, 「과인은 국운이 분운하고 내가 임종한 뒤에 10일이 되면 곧 궁문 밖 뜰에서 인도의 의식에 따라 불로써 태워 장사지내라. 복을 입는 기간의 경증은 본래부터 뚜렷한 법도가 있거니와, 장례라는 제도는 힘써 검약한 법도를 따르도록 하라....」 하였다.¹⁾

문무왕의 수중릉(水中陵, 大王岩)은 월성군 양북면 봉길리 앞바다에 있다. 해안에서 약 200m 떨어진 대왕암 안의 연못처럼 된 물밑 암반(巖盤)에 골호(骨壺)를 놓고 큰 판석(板石)으로 덮었다고 생각된다. 이 판석은 석관(石棺)의 개석(蓋石)이며, 형태가 거북형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 신라본기(新羅本紀) 34대 효성왕(孝成王)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6년(742) 5월에 유성이 삼대성(三大星)을 침범하였다. 왕이 돌아가시므로 시호를 효성(孝成)이라 하고, 유명에 의하여 영구를 범류사 남쪽에서 화장하고, 그 뼈를 동해에 뿌렸다.²⁾

『삼국사기(三國史記)』 신라본기(新羅本紀) 37대 선덕왕(宣德王)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6년(785) 정월에 「과인은 본래 덕이 적으므로... 죽고 사는 것은 천명이니 다시 무엇을 한탄하랴? 죽은 뒤에는 불법에 따라 화장을 하고 뼈는 동해에 뿌려 달라」 고 하였다.³⁾

『삼국사기(三國史記)』 신라본기(新羅本紀) 38대 원성왕(元聖王)에도 다음과 같은 유언이 있다.

14년(798) 12월 29일에 왕이 돌아가시므로, 시호를 원성(元聖)이라 하고, 유명(遺命)에 의하여 영구를 봉덕사의 남쪽에서 화장하였다.⁴⁾

이상 『삼국사기』에 나오는 왕들의 유언은 검소

1) 三國史記 卷 第七 新羅本紀 第七 文武王 下, 삼국사기, 명문당, 1995, 197쪽 “二十一年 秋七月一日, 王薨, 諡曰文武, 羣臣以遺言葬東海口大石上, 俗傳王化爲龍, 仍指其石爲大王石. 遺詔曰, 「寡人運屬紛紜, ... 屬纊之後十日, 便於庫門外庭, 依西國之式, 以火燒葬, 眼輕重, 自有常科, 喪制度, 務從儉約, ”

2) 三國史記 卷 第九 新羅本紀 第九 34. 孝成王, 삼국사기, 명문당, 1995, 237쪽 “六年(742) 夏五月, 流星犯三大星, 王薨, 諡曰孝成, 以遺命燒柩於法流寺南, 散骨東海.”

3) 三國史記 卷 第九 新羅本紀 第九 37. 宣德王, 삼국사기, 명문당, 1995, 248쪽 “六年(785) 正月, 「寡人本惟菲薄, ... 生死有命, 顧復何恨, 死後依佛制燥火, 散骨東海. 」 ”

4) 三國史記 卷 第十 新羅本紀 第十 38. 元聖王, 삼국사기, 명문당, 1995, 260쪽 “十四年(798) 冬十二月二十九日, 王薨, 諡曰元聖, 以遺命舉柩燒於奉德寺南,”

하게 화장하여 죽어서도 동해를 지키는 호국적인 심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많은 왕들이 자신이 화장되기를 유언하지는 않았지만, 통일신라시대의 토기 중 골호가 많이 출토된 점에 대해서는 통일신라시대에 불교가 융성했고, 그에 따라 화장문화가 많이 발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통일신라토기 골호의 시대별특징

골호는 불교식으로 화장을 한 후 그 재를 담은 장골용기로서, 『삼국사기』 권 7 문무왕 21년 조에 화장에 관한 첫 기록이 보이지만 사실은 삼국시대 백제에도 골호의 사용이 있었음을 백제 토기호(그림 1)⁵⁾에서 알 수 있다. 골호는 경주를 둘러싸고 있는 남산, 선도산, 도함산, 명활산, 소금강산 등의 양지 바른 언덕에서 단독으로 출토되며, 대체로 그릇의 형태와 무늬로 보아 전기, 중기, 후기로 분류된다.



[그림 1] 토기호(骨壺)

3.1. 전기

전기의 골호는 토기의 기형과 문양에 삼국시대 토기의 영향이 남아 있으며 때때로 부장된 「개원통보(開元通寶)」⁶⁾가 발견되었고, 때로는 일상용구를 골호로 사용한 예도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탑 모양의 골호[塔形骨壺], 장경호형각선문골호, 향아리 전면에 돌대문이 돌친 돌대문골호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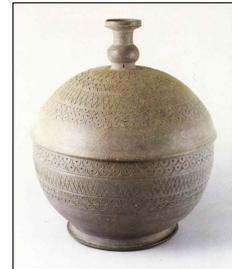
탑형골호(그림 2)⁷⁾는 그릇의 형태가 둥근형이고 약간 높은 굽에는 4개의 사각모양의 뚫린 구멍이 있다. 뚜껑에는 3층탑 모양의 산개(傘蓋)와 같은 탑형 꼭지가 있으며, 이 꼭지에서 4방으로 사격자문대(斜格子紋帶)가 선각으로 시문되어 있어 탑을 오르기 위한 계단을 연상시킨다. 실제로 복발(覆鉢)이라고 부르는 얽어진 사발 형태의 탑에 계단이 설치된 예로는 인도의



[그림 2] 탑형골호(塔形骨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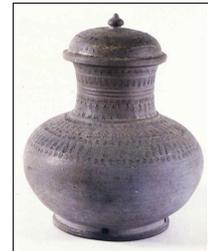
산치 대탑이 있으며 탑형 골호의 뚜껑과 닮았다. 골호의 뚜껑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특이하게 장식하는 것은 인쇄문(印花紋)이 본격적으로 장식되기 시작하는 8세기경 이전에 유행했던 것이어서 이 골호가 통일신라 전기에 제작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장경호형각선문골호(그림 3)⁸⁾는 형태가 탑형골호와 거의 같으나 굽이 더욱 낮아지고 굽에 뚫려있던 구멍이 생략되었다. 뚜껑에는 병 모양의 꼭지가 달려 있으며, 이 꼭지는 신라 말기 고분에서 출토되는 장경호와 비슷하고 꼭지 하단부에 2개의 작은 구멍이 있다. 뚜껑과 몸의 상반부에는 사격자문과 반권점문(半圈點紋)을 교대로 장식했는데 사격자문은 장삼각형을 겹친 것처럼 새겼다. 색조는 약간 갈색을 띤 회색으로 뚜껑에는 자연유(自然釉)가 얇게 덮이고 광택이 난다. 제작 시기는 탑형골호와 거의 비슷한 시기로 간주된다.



[그림 3] 長頸壺形刻線紋骨壺

장경호형골호(그림 4)⁹⁾는 풍만하게 둥근 몸에 짧고 납작한 받침대가 붙어 있고, 받침대에는 4각형의 구멍 4개를 뚫었다. 목 중앙에는 2조의 돌선대(突線帶)를, 목과 몸이 이어지는 부분에 또 1조의 돌선(突線)을 돌렸으며 구연은 약간 외반하였다. 반구형(半球形) 뚜껑의 중심부에는 보주형 꼭지가 붙어 있고 주연(周緣)이 일단 넓어졌다가 수직에 가깝게 휘어져 뚜껑이 구연부 바깥으로 덮여씌워지도록 되어 있다. 뚜껑과 몸의 상반신에 장삼각형문대와 중권문(重圈紋)을 교대로 메웠다. 색조가 전면 회색인 경질 토기이다.



[그림 4] 長頸壺形骨壺

이상의 골호들 외에도 다양한 골호가 많은 것으로 보아 전기 골호의 연대는 6세기 후반으로부터 7세기에 많이 유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3.2. 중기

8세기는 신라문화의 전성기로서 불교가 국민사상을 대표하고 있는 불교를 통하여 당의 문화가 널리

5) 土器壺(骨壺), 높이 20.4cm, 백제시대, 충남 부여 신암리 출토, 국립부여박물관.

6) 唐五代시기의 엽전

7) 塔形骨壺, 높이 28.1cm, 몸지름 20.9cm, 밑지름 13cm, 7~8세기, 경주시 출토, 국립경주박물관.

8) 長頸壺形刻線紋骨壺, 높이 27.4cm, 통일신라 전기, 경주시 출토, 국립경주박물관.

9) 長頸壺形骨壺, 높이 28.5cm, 통일신라 전기, 경주시 서덕동 출토, 국립경주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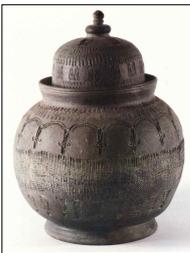
소개된 시기로서, 특히 조각·공예·건축 등에서 탁월한 역량이 나타났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효성왕(孝成王 재위 737~741), 선덕왕(宣德王 재위 780~784), 원성왕(元聖王 재위 785~798) 등 8세기에 재위한 제왕은 스스로 사후의 화장을 명하고 있다. 이 시기에는 골호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문양도 각종 인화문이 골호의 전면에 화려하게 시문된 것으로 보아, 왕들이 유연한 시기와 일치하는 골호의 전성기로 생각된다.

골호의 형태를 보면 밑이 둥근완모양, 굽이있는 합모양, 네귀달린 향아리모양, 굽다리잔모양, 입큰긴목병모양 등이 많이 있으며, 특수한 형태로는 원통모양, 가옥모양, 사각합모양, 세발단지모양 등으로 모두 뚜껑을 갖추고 있는 등 매우 다양하다. 이들은 뚜껑에 꼭지가 없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원추모양, 보주모양, 잔모양[杯形]과 구멍 뚫린 돌기가 뚜껑과 몸 둘레에 나란히 상·하 돌기는 서로 접합된 것과 떨어져 있는 것의 두 종류가 있다.

이 시기의 토기합골호(그림 5)¹⁰⁾는 둥근형태의 꼭지가 없는 골호(骨壺)로 뚜껑 중심에서 몸의 아랫부분까지 초엽문(草葉紋)과 승렴문(繩簾紋)을 교대로 배치하여 문양 구성이 비교적 단조롭지만, 소성도가 아주 높아 표면은 회청색이 나고 광택이 있다. 토기골호(그림 6)¹¹⁾의 몸은 구형(球形)이고 넓은 받침대가 붙어 있다. 구연은 받침대와 거의 같은 형태로 약간 외반(外反)하고 있으며 안쪽에 직립한 또 다른 구연이 붙어 있다. 2개의 구연 사이에 뚜껑이 끼워지도록 만든 특수한 형태이다. 문양은 통일신라 토기에 많이 보이는 영락문(嬰珞紋)·점선문(點線紋) 외에 사다리꼴 윤곽 안을 돌점문(突點紋)으로 채운 특수한 문양이 이채롭다. 조형(造形), 문양 배치 등이 대단히 우아한 수작(秀作)이다. 운압문골호(그림 7)¹²⁾는 뚜껑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뚜껑과 몸에 붙인 각각 4개의 돌기(突起)는 서로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다. 꼭지 둘레에는 비압문(飛鴨紋)을 돌리고 뚜껑



[그림 5] 土器盒骨壺



[그림 6] 土器骨壺

어깨에는 단화문(團花紋)을 압인(押印)하였다. 몸의 중앙에는 비운문(飛雲紋) 위에, 뚜껑에 시문하였던 비압문을 배치하였으며 그 위아래에 각각 승렴문(繩簾紋)을 시문하였다.

녹유발골호(그림 10)¹³⁾은 뚜껑을 덮은 형태가 구형(球形)에 가깝고 비교적 높은 받침대는 외반(外反)하였다. 뚜껑에는 보주형 꼭지가 붙어 있으며, 표면 전체에 얇은 명황색유(明黃色釉)가 덮여 있으나 탈락이 심하여 담갈색 태토가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

녹유골호(內壺, 그림 8)¹⁴⁾은 비교적 둥근 몸에 약간 굽은 약간 외반하였다. 뚜껑은 보주형(寶珠形) 꼭지가 붙어 있고 전면에 녹유를 시유하였으나 색조는 외호보다 한층 더 짙은 갈색을 띠고 있다. 뚜껑의 윗면과, 향아리의 몸에는 음각선대를 차례로 돌려 구획을 설정하고, 보주의 주변, 목부분과 몸의 하부는 원문(圓紋)을, 그 외의 공간은 타원형의 연주문(連珠紋)을 도장으로 찍었다. 황백색의 태토 위에는 녹유가 빈틈없이 씌워져 있는데 윗부분에는 약간의 푸른색 기운이 감돌고 있으나 아랫부분은 황색조가 강하다. 이 골호는 내·외호가 한 세트를 이루는 흔치 않은 예로 상당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녹유합골호(그림 9)¹⁵⁾는 화강암을 깎아 만든 석함(石函) 속에서 발견되었는데 안팎 모두 녹유(綠釉)가 시유되어 있을 뿐 아니라 통일신라의 녹유 토기 중 아주 발색이 좋은 작품의 하나로 귀중한

자료이다. 뚜껑과 몸통으로 구분되는 이 토기는 전체적으로 완만하게 둥근 형태를 하고 있으며 뚜껑 중심



[그림 7] 雲鴨紋骨壺



[그림 8] 綠釉骨壺



[그림 9] 綠釉盒骨壺

10) 土器盒骨壺, 높이 18.3cm, 통일신라 중기, 경주시 출토, 국립경주박물관.

11) 土器骨壺, 톱이 31.7cm, 통일신라 중기, 경주시 출토, 국립경주박물관.

12) 雲鴨紋骨壺, 높이 24.0cm, 통일신라 중기, 경주시 출토, 국립경주박물관.

13) 綠釉鉢骨壺, 높이 14.9cm, 통일신라 중기, 경상도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14) 綠釉骨壺(內壺), 높이 18cm, 8세기, 경주시 남산동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15) 綠釉骨壺, 골호 높이 16.5cm, 몸지름 8.8cm, 석함 높이 43cm, 안지름 43cm, 8세기, 국보 125호, 경주시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에는 사엽(四葉)의 서화문(瑞花紋)을 압인하고 그 주위에 2조의 영락문을 돌렸다. 뚜껑의 위쪽부터 영락문(瓔珞紋)·승림문(繩簾紋)·화관문(花瓣紋) 등이 차례로 압인되어 있으며, 뚜껑과 합이 물리는 부분부터 아래위로 대칭을 이루는 문양 배치를 볼 수 있다. 화강암으로 만든 석함 역시 골호처럼 뚜껑과 몸통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외면을 정교하고 예리하게 면각(面刻)한 것으로 보아 특수 계층을 위한 공예품일 것이다. 삼채대부합(그림 10)¹⁶⁾은 삼채합(三彩奩)과 더불어 현존하는 두 점의 통일신라 삼채 유물로 귀중한 자료이다. 뚜껑과 합신(盒身)의 기본적인 형태는 하단부에 높은 굽을 붙였다는 점이 다를 뿐 삼채합과 같으며, 전체적인 형태는 통일신라시대에 유행했던 토기 고배(高杯)와 같다. 이 합(盒)의 뚜껑에는 꼭지가 붙었던 흔적이 남아 있고, 문양은 두 줄의 이중원문대(圓紋帶) 사이에 삼각형 문양을 넣었다. 납작한 합신을 받치고 있는 굽은 약간 밖으로 벌어진 모양을 하고 있으며 그 사이에는 두 줄의 음각선을 경계로 사다리꼴 모양의 작은 구멍을 엇갈리게 만들었다.



[그림 10] 三彩臺附盒

방형합골호(그림 11)¹⁷⁾는 수직 기벽(器壁)을 가진 방형의 몸체에 보주형의 꼭지를 붙인 뚜껑을 씌운 방형합(方形盒)이다. 꼭지 주위에는 콤파스를 사용하여 연속반원형문을 돌렸으며, 반원문(半圓紋)의 중심과 꼭지 사이에는 각선(刻線)을 그려 사선으로 채웠다. 뚜껑 사면(斜面)에는 콤파스로 그린 원권문(圓圈文)을 3개씩 4면에 배치하였다. 기벽과 뚜껑 구연에는 역시 콤파스를 이용하여 위아래가 서로 엇갈린 연속반원문을 그렸다. 색조는 회색이며, 소성도가 낮은 연질토기이다. 가형골호(그림 12)¹⁸⁾는 팔각지붕을 한 골호 외함(外函)으로, 한쪽 벽에 한번 16cm의 정사각형 문(門)을 내



[그림 11] 方形盒骨壺



[그림 12] 家形骨壺

16) 土器三彩臺附盒, 높이 11.6cm, 입지름 10.6cm, 밑지름 7.3cm, 8세기경, 경주시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17) 方形盒骨壺, 뚜껑단면 14.6*16.4cm, 통일신라 중기, 경주시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18) 家形骨壺, 높이 43.5cm, 통일신라 중기, 경주시 보문동 출토, 국립경주박물관.

었다. 문의 4귀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문을 받치는 돌기형(突起形)의 암돌쩌귀 4개가 붙어 있다. 지붕은 정교하게 마무리되었고 용마루 양끝에는 치미(鷓尾)가 붙어 있었으나 소실되었으며, 벽면에는 화문(花紋)을 눌러 새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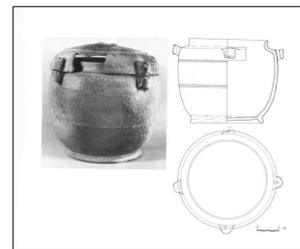
이상에서 보면 중기의 골호에 사용되어진 문양은 뚜껑과 몸의 전면에 화관무늬[花瓣紋]·돛자리무늬[繩簾紋]·나뭇잎무늬[樹葉紋]·구름무늬[雲紋]·점무늬·영락무늬[瓔珞紋]·조수무늬[鳥獸紋]·점권문(點圈紋)·반점권문(半點圈紋)·운학무늬 등으로서 인화문으로 새겨지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양에는 점권문·반점권문과 같은 삼국시대의 토기에서 계승된 것도 있으나 당(唐)의 채화문(彩花紋)이라든가 첩화문(貼花紋)의 영향을 받은 것도 적지 않다. 화관문(花瓣紋)을 호선(弧線)으로 연결한 화승문(花繩紋)은 불상의 천개(天蓋) 장식이라든가 불국사·송림사 등에서 발견된 사리장치(舍利藏置)의 옥개(屋蓋) 둘레에 돌린 영락장식에 연유하는 것으로 볼만하다.

특히 전성기의 인화문골호에는 황갈 혹은 황록의 연유(鉛釉)계통의 유약이 쓰여 지며, 중국에서도 한대(漢代) 토기에서 시작하여 당대에 와서는 삼채(三彩)로 발전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 고구려토기에서 이미 시유도기가 나타나는데, 연유(鉛釉)는 고화도에서 증발하여 없어지나 섭씨 500~800도 정도의 저화도(低火度)에서 용해되어 아름다운 색이 나타나므로 골호 같은 장골용기를 화려하게 하기 위해 인화문골호에 특히 많이 사용된 것이 특색이다.

3.3. 후기

일반적으로 9세기에 유행한 골호로서 인화무늬는 사라지고 민무늬가 되며 뚜껑에는 돌대선이 부착되는 경우도 있으나 뚜껑과 몸에 1~2줄의 음각(陰刻) 횡선이 돌리지는 것이 특색이다. 형태는 전체 높이가 약 30cm 정도 되는 크기에 원형을 이룬 형태가 많으며 간혹 타원형인 것도 있다.

뚜껑 꼭지는 보주형(寶珠形)이며 굽은 평저(平底)이거나 또는 가는 굽이 끝에 약간 달려 전체적으로 민무늬의 차분한 안정감을 준다. 색조도 맑은 회색조를 띠며 경질이다. 이와 같은 민무늬의 골



[그림 13] 「元和10년」銘骨壺

호가 9세기에 유행했음을 뒷받침하는 유물로는 1984

년에 발굴 조사된 「원화(元和)10년」 명 골호(그림 13)¹⁹⁾가 있다. 「원화10년」 명 골호는 제작 연대가 적혀 있는 완전한 모양의 토기로는 유일한 예이다. 「원화10년」은 중국의 당 헌종 때의 연호로 서기 815년에 해당되어 골호로서 뿐만 아니라 통일신라토기 연구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9세기 후반에 있어서의 대표적 토기로서는 월주요(越州窯) 청자를 내호(內壺)로 넣은 소문골호(그림 14)²⁰⁾가 있으며, 전체 기형이 보주형으로 뚜껑의 꼭지도 보주형이다. 이 골호는 몸에 문양이 없고 뚜껑 중앙에 2조의 굽은 돌대(突帶)와 몸에 2조의 돌대가 상하로 둘러있다. 뚜껑과 몸을 결합하기 위한 돌기도 엇갈리게 달려 있으며 퇴화된 둔중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그림 14] 素紋骨壺

토기합골호(그림 15)²¹⁾는 전체 기형이 보주형으로, 뚜껑에도 보주형 꼭지가 붙어 있다. 뚜껑과 몸에 각각 4개의 납작한 돌기가 붙어 있고 거기에 구멍이 관통하고 있어 뚜껑과 몸을 고정하도록 되어 있다. 전면이 소문(素紋)으로 소성도가 대단히 낮은 연질토기(軟質土器)이며, 색조는 몸이 갈색, 뚜껑은 흑갈색이다.



[그림 15] 土器盒骨壺

이상에서 보면 후기 골호는 대부분 문양이 없이 돌대(突帶)를 돌렸으며 중기에서 볼 수 있던 화려한 여러 종류의 인화문은 볼 수 없어 지극히 단조롭다. 이와 같은 골호에서는 9세기 경에서부터 매너리즘에 빠지는 신라미술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4. 골호의 형태와 문양에 나타난 심미의식

통일신라시대의 불교는 당으로부터 다양한 종파가 전래되었으며, 특히 혜초의 경우 당에서 멀리 인도와 서역을 돌면서 유명한 『왕오천축국전』이라는 기행문을 남기기도 하였다. 또한 도당유학생들에 의해 불교종파가 들여왔는데, 대표적인 종파는 원융, 즉 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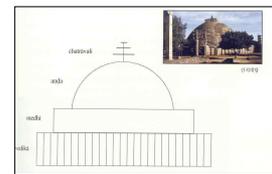
의 사상을 제시하는 화엄종과 우주만물의 본체보다 현상을 세밀하게 분류하고 분석하는 입장을 취하여 온갖 만유는 오직 식(識)이 변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파악한 법상종이었다.

특히 화엄종의 원융과 조화의 사상을 중시하는 사상이 통일신라시대의 골호의 형태와 문양에서도 발견되어 진다.

4.1. 형태

4.1.1. 탑형(塔形)

탑은 불교가 발생하기 전부터 고대인도에서 '무덤'의 뜻으로 죽 사람이 죽고 나면 화장(火葬)을 한 후 흙과 돌로 돔(Dome)과 원분(圓墳)을 만든 것을 가리켰다. 이러한 탑은 불교발생과 더불어 교주인 석가모니가 입멸열반(入滅涅槃)하자 제자들이 그의 유해를 당시의 사회 장속(葬俗)에 따라 다비(荼毘; 火葬)하였고, 다비 후 그 유골인 사리(舍利)를 봉안하면서 불교적인 조형물이 되었다. 불탑의 성격은 처음에는 불신골을 모신 무덤이었으나 점차 불교의 거룩한 가르침을 뚜렷이 표시함으로써 그 믿음을 세상에 널리 퍼뜨리기 위한 기념물로 바뀌어 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도의 불탑으로 초기의 것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형태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기원전 3세기경의 산치(sanchi)대탑(그림 16)을 보면 반구형의 그릇을 뒤집어 놓은 듯한 복발(覆鉢)을 봉분(峯墳)하듯 흙과 돌로 쌓아 올리고 그 위에는 제단에 비유되는 판석(板石)을 방형(方形)으로 올타리같이 짜서 평두(平頭)라는 것을 만들고 불사리를 안치하였다.



[그림 16] 산치대탑

산치 대탑을 닮은 탑형골호(그림 2)는 공처럼 둥근 형태를 가진 골호로서, 뚜껑에는 탑의 상륜부(相輪部) 구조와 유사한 3층탑 모양의 꼭지가 달려 있다. 특히 둥근 뚜껑에는 4방향의 사격자문(斜格子紋)이 음각되어 있어 산치대탑을 오르기 위한 계단을 연상케 한다. 이 골호의 형태가 인도의 산치대탑을 닮은 것은 통일신라시대의 사람들이 불교를 믿고 따름에 일체의 사심을 넣지 않고 불심으로만 작업하는 신심미(信心美)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4.1.2. 보주형(寶珠形)

보주(寶珠)는 모든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구슬로서

19) 元和十年銘骨壺, 815년, 경주시 傳 閔哀王陵 주변 출토, 국립경주박물관.

20) 素紋骨壺, 높이 33.6cm, 통일신라 후기, 경주시 拜洞 三陵 출토, 국립경주박물관.

21) 土器盒骨壺, 높이 30.4cm, 통일신라 후기, 경주시 출토, 국립경주박물관.

여의주(如意珠) 또는 여의보주(如意寶珠)라고도 한다. 「지도론 智度論」 권59에 의하면 원래 용왕의 뇌 속에서 나온 것으로 사람이 이 구슬을 가지고 있으면 독이 해칠 수 없고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다고 한다. 불교에서는 중생을 정신적인 번뇌와 세속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공덕과神通력을 가진 상징체로서 신앙되어 점차 불상·보살상의 지물로 표현되었으며 보관(寶冠)·광배(天蓋)·사리기 등 여러 부분에 장식적으로 사용되었다.

통일신라시대의 골호로는 전기에 속하는 보주형돌대문골호와 장경호형골호(그림 4)의 뚜껑에 있는 보주형 꼭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중기의 골호에서는 더욱 많이 나타나는데 토기합골호, 운암문골호(그림 7), 녹유발골호, 녹유골호(그림 8), 삼족골호, 방형합골호(그림 11)에서 약간씩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후기에 속하는 소문골호(그림 14)와 토기합골호(그림 15)에서도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정신적인 번뇌와 세속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중생의 소망이 얼마나 간절하였고神通력 또한 지니고 싶어 하는 희망이 담겨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보주형을 지니고 있는 형상은 백제의 골호(그림 1)에 이미 보여 지고 있으며, 특히 서산마애삼존불상(그림 17)의 본존은 머리에 보주형 두광(頭光)²²⁾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통일신라시대의 토기에 많이 등장하는 보주형은 국가를 초월하여 선조들의 훌륭한 전통을 존중하며 시대의 변화에 잘 응용하는 통일신라인들의 조화의 심미의식을 느낄 수 있다.



[그림 17] 서산마애삼존불상

4.1.3. 원형(圓形)

원은 불법과 불성을 상징한다. 특히, 「월인석보」나 「월인천강지곡」 등이 표상하는 불성은 달과 어우러져 한층 원의 의미를 심화 시킨다. 불법이나 불성이 광채로 표상되면, 달빛이 되고, 모양으로 표상되

22) 불상의 머리나 몸체 뒤쪽에 있는 원형 또는 배 모양의 장식물을 광배(光背)라 한다. 이것은 부처님의 몸에서 나오는 빛진리와 지혜의 빛을 상징화 한 것이다. 부처님이 발산하는 일체의 빛은 깨달음의 정신적 에너지이며 지혜의 상이다. 미망의 어두움을 파하고 진리를 들어내는 광명이며, 시방세계를 빈틈없이 비추는 無量光이다.

면 만월의 원이 된다. 이렇게 양자가 어울리면서 원은 불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혜와 깨달음을 상징하게 된다.

통일신라시대 골호에는 골호의 형상 자체가 원처럼 둥근 것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탐형골호(그림 2), 장경호형각선문골호(그림 3), 보주형돌대문골호, 녹유발골호, 녹유합골호(그림 9), 삼채합, 녹유합골호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는 골호의 형상이 곧 부처의 불법과 불성을 상징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신라시대 사람들의 불교에 대한 신심이 심미의식으로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4.2. 문양

신라는 삼국 중 불교를 가장 늦게 받아들인 나라이지만 외래문화를 가장 잘 이용하였기 때문에 약소국으로 삼국통일을 이룰 수 있었다. 또한 통일신라는 당나라의 발달한 문물을 직접 받아들였기에 멀리서는 서역까지도 직접 왕래하면서 문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 시기에 즐겨 사용하던 문양들은 골호에 있어서는 삼각형문, 권점문(圈點紋)을 제외하고는 새로이 나타난 단화문(團花紋), 능형문(菱形紋), 주문(珠紋), 선형문(蟬形紋), 장막문(帳幕紋) 등이 있으며 그 밖에는 앞 시대의 것들과 동일하다.

4.2.1. 연화문(蓮花紋)

인도의 토속 신앙에 기초하여 빛과 생명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던 연꽃은 불교 성립 이후에는 부처의 상징으로서 불교를 설명하기 위한 교리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연꽃은 오랜 수행 끝에 번뇌의 바다에서 벗어나 깨달음에 이른 수행자의 모습에 비유되고, 빛의 상징이자 생명의 근원인 연꽃 하나하나에 부처가 탄생한다는 무한 창조 관념이 이루어 졌다.

아미타경(阿彌陀經)에서 연꽃은 극락정토(極樂淨土)를 상징한다. 극락정토는 연꽃으로 장엄된 아미타여래의 세계이다. '화엄경'에서의 '연화장(蓮華藏)세계'도 부처의 세계이며, 정토의 세계이다. 연꽃의 생김새를 축을 중심으로 방사되는 바퀴살에 비유해서, 연꽃은 윤회(輪廻)의 가르침을 암시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연꽃은 윤회의 상징이기도 하다. 고구려와 백제 고분 벽화에서 연꽃을 볼 수 있다. 고구려 쌍영총(雙楹塚)의 경우, 천장 중앙에 큰 연꽃이 배치되어 천계(天界)의 중심을 나타내고 있다. 백제의 부여 능산리 고분벽화의 경우 천장에 그려진 연화운문도(蓮花雲紋圖)는 우미하고 섬세한 백제적 감각으로 천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불교를 상징하고 있는 연화는 이미 고구려와 백제 고분 벽화에서 볼 수 있으며 골호에도 중요한 문양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토기합골호, 녹유골호, 녹유사이골호, 녹유합골호(그림 9), 가형골호(그림 11)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고분벽화에서는 붓과 물감을 가지고 장식하였기에 표현이 섬세하고 화려할 수 있지만, 토기에 연화문을 장식하는데 있어서는 인화문으로 찍어 표현하였기에 연화를 크고 작은 원의 조합으로 단순화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단순하지 않은 연화를 단순한 원의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통일신라인들의 복잡한 것을 중요한 부분 즉 불법의 의미를 간직하면서도 단순화하는 원용의 심미의식이 있다고 생각된다.

4.2.2. 영락문(瓔珞紋)·연주문(連珠紋)

구슬을 꿰어 몸에 달아 장엄하는 기구를 말하는데, 인도의 귀인들은 남녀가 모두 영락을 두르며, 보살도 영락으로 장식·단장한다. 후세에는 불상이나 불상을 모시는 궁전을 장엄할 때에 꽃모양으로 만든 금속장식이나 주옥을 섞어 쓰는 것을 영락이라 하게 되었다.

영락의 표현은 특히 불교미술이 성행되던 시기에 여러 기물에 다채롭게 나타나는데 불탑이나 사리기는 물론 범종·향로·동경 등 각종 불구(佛具)에 성행되었다. 그 예로 백제의 금동관세음보살입상(그림 18)은 보관에 새겨진 화불과 손에 쥔 보주, 뛰어난 기법으로 조각된 우아한 자세, 자유로운 천의 자락의 흐름 등에서 백제 불상 조각의 완숙함이 느껴지는 작품으로, 오른 손은 가슴 위로 들어 보주를, 왼손은 내려서 천의 자락을 주고 있으며 몸의 앞면과 뒷면에는 영락을 장식하고 있다.



[그림 18] 金銅觀世音菩薩立像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시대 토기, 토기합골호, 토기골호(그림 6), 녹유골호(그림 8), 녹유사이골호, 녹유합골호(그림 9), 3족골호 등 골호에 많이 나타나고 와당에도 장식된 것으로 보아 다양한 곳에 응용하는 조화의 심미의식으로 볼 수 있다.

4.2.3. 원권문(圓圈文)

무속과 민간 신앙에서의 원은 하늘·태양 등을 통해 그 상징성을 표현하는가 하면, 칼이나 거울·알 등을

통해서도 그 상징성을 나타낸다. 하늘과 일월, 곧 해와 달은 원의 도형으로서 종교적 의미 또는 해·달이 종교적 신앙의 대상으로서 가진 속성을 원이 부분적으로 나누어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달의 원형은 달 자체가 고요하고 우아하고 정갈하므로, 해와는 다른 상징성을 지니게 된다. 평화·안식·고요·원만함·자유스러움 등의 상징을 지니는 달의 속성은, 몽상이나 상상으로 열어껏해질 자연의 속 깊은 마음 또는 영혼이 잡혀진다. 이것은 태양의 원형이 지니는 남성적인 힘과는 전혀 다른 상징성을 가진다.

우주 또는 태양과 달을 상징하는 원은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도 볼 수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 중에 환문층의 현실에 그려진 동심원상은 벽면 전체에 여러 개의 동심원이 일정하게 그려져 있다. 골호에 원권문이 장식된 것은 녹유골호(그림 8), 녹유사이호, 삼채대부합(그림 10), 방형합골호(그림 11)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골호의 형태가 둥근 원으로 만들어진 것은 불법과 불성을 상징하고 있다면, 골호의 표면에 압인문이나 선각으로 원을 장식한 것은 예전부터 상징해 오던 태양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 골호의 형태와 표면에 장식된 문양을 보면 대개가 불교에서 중시하는 불성이나 부처의 밝은 빛, 부처의 말씀이 하늘에서 내리는 꽃으로 상징되는 화문 등으로 표현되어 불법에 충실한 통일신라시대 사람들의 신심을 조화와 원용으로 표현한 심미의식을 읽을 수 있었다.

5. 결론

6세기 말부터 신라토기가 변화하기 시작하여 통일신라토기의 양식이 나타나는데, 낮은 굽의 굽다리접시와 넓고 낮은 굽의 뚜껑이 있는 합(盒)이 통일신라토기의 대표적 예이다. 또한 8세기는 통일신라에서 골호가 가장 많이 제작된 시기로 특히 납을 함유한 녹유 골호가 많이 생산된 시기이기도 한다. 이외에도 중국 당나라와의 교류와 불교의 영향으로 새로운 기술과 형태의 토기들이 제작된다.

통일신라시대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은 왕들이 자신의 화장을 유언하였다는 점이다. 왕들이 화장을 유언하였던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화장은 사회전반으로 퍼졌을 것이고 출토된 골호의 형태와 문양, 그리고 상태는 사회적 신분이 높은 귀족층에서도 화장문화가 발달하였다고 생각된다.

신라토기에서 통일신라시대 토기로의 변천은 비현실적·비실용적 토기에서 기능적이고 현실적인 실용성을 지닌 토기로, 다시 말하면 비합리적인 것으로부터

합리적인 것으로의 비약이라고 하겠다. 이것은 전기, 중기, 그리고 후기에 등장하는 많은 골호의 형상과 용도에서 볼 수 있다.

전기의 골호는 동심원무늬와 격자무늬가 장식된 회청색 경질토기(硬質土器)였으나, 8세기가 되면서 무늬가 조각된 도장으로 찍어 그릇 전체를 다양한 인화문으로 장식하고 형태도 다양해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후기에는 인화문의 화려함도 사라져 무늬는 없고 형태 또한 단순해 저서 통일신라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골호의 형태와 문양에서 통일신라시대 사람들은 전통의 미를 존중하면서 새로운 것을 응용하는 조화의 심미의식, 국가를 초월하여 외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원만하게 하는 원용의 심미의식, 그리고 예전의 토기가 대부분 무덤에 넣는 부장품이었음에 비해 통일신라시대의 골호는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사람들의 소망을 골호의 형태와 문양에 그대로 담아 표현하던 신심의 심미의식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통일신라시대의 다양한 골호에 표현된 탐형·보주형·원형 등의 형태와 연화문·연주문·영락문 등의 문양들은 조화와 원용을 이상으로 삼고 있는 불교의 상징을 표현한 것으로서, 불교적 이상을 골호에 통일신라시대 사람들의 심미의식으로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강경숙.(1995). '한국도자사', 서울: 일지사.
- 金富軾 著, 金鍾權 譯.(1995). '삼국사기', 서울: 明文堂.
- 一然 著, 金奉斗 編譯.(1995). '삼국유사', 서울: 敎文社.
- 최건 外.(2000). '토기·청자 I', 서울: 예경.